크리스챤의 축복 (3)

신학박사 조 덕운

성경 말씀: 누가복음 6:20-23 [흠정역]

20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21 지금 굶주리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지금 슬피 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라.

22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2) 풍족함과 기쁨의 약속

주 예수님께서 위의 설교에서 약속하신 두번째 축복은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지금은 굶주릴 지라도 배부르게 될 것이며, 지금 슬픔을 경험할 지라도 기쁨으로 웃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절에서 현재 가난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축복과 연계된 약속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과거에 일본 제국 주의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는데, 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에 의하여 착취당하고 자유를 피탈 내지 억압당하여 억울하고 슬프고 괴로운 시절을 35년간이나 보냈습니다.

한국민들은 지금 현재 북한의 고정 간첩의 아들로서 이 사실을 숨기고 정치적 술수를 통하여 대통령이 된 문재인의 정권 아래에서 재산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바른 교육을 받을 자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권리 등 개인과 단체, 특히 크리스챤들의 종교 신앙적 자유를 크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크게 억압당하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좌파들의 준동으로 화평과 기쁨이 없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형편이니 어찌 이를 하나님의 왕국이라 하겠습니까. 코비드-19을 핑게로 하여 교회의 예배 행위를 억압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성경과 찬송가를 비치하지도 못하게 하는 문 정부의 정책은 중국 공산당의 기독교 탄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면 너희는 풍족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즐거운 생활을 하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생이 끝나고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커다란 풍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구현된다면 이 풍족함과 기쁨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롯또에 당첨되어 큰 부자가 된다거나, 주식 투자를 하면 크게 성공하여 부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굶주림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서 강조되었던 하나님의 원칙중 하나는 가난한 자들, 과부들과 고아들과 같이 소외된 계층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5:7-11]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네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네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네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고 네 가난한 형제로부터 네 손을 접지 말며, 8 그에게 네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꾸어 주라. 9 너는 조심하여 네 악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네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네 땅에서 네 형제와 네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지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제 분배의 원칙이 지켜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풍족함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제반 원칙과 진리가 존중되고 시행되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에게는 안정된 생활과 아울러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풍족과 기쁨'의 약속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실천하기를 기대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로 오천명의 군중을 먹이셨고 [마태 14:13-18], 그 후에 또 한번 빵 일곱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사천명 이상의 군중을 먹이셨습니다 [마태 15: 32-25].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허기지게 되었으므로 무엇인가 먹어야 하는 필요성을 예수님께 호소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먹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떠날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시니

이 기적을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고픈 형제 자매들을 먹어야 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소명 중 하나는 가난한 신도들을 돌보아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풍족함이 있어야 한다는 주님의 원칙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으로서 그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대속 희생하셔서 참 구원을 얻게 되었으므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항상 갖게 됩니다.
- 하나님의 백성은 이 험한 세상에서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불안과 걱정 대신에 큰 확신과 기쁨을 갖고 삽니다.
-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는 형제 자매들이 있고 인생 살이의 굴곡을 형제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하여 줌으로써 큰 위로와 기쁨을 갖고 삽니다.

-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간성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이 단지 이생에서 영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한 걸음이며, 그 다리를 건너면 하나님과 그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을 믿고 미리 보고 살기 때문에 큰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큰 기쁨은 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 후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생긴 것으로서 지금까지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한 후에 생긴 불안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유전인자에 심겨져 내려 왔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지니고 태어 났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 오시고 우리가 주 안에 선택 받은 백성으로 인침 받은 그 순간부터 그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말할수 없는 큰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매일 말할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22] 그러므로 지금은 너희에게 근심이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요, 아무도 너희에게서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7:13]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풍족함과 기쁨의 약속은 죽음 너머에서 받을 것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생을 사는 동안부터 향유하는 축복임을 알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서게 될 때에 그 왕국안에는 이러한 풍족함과 커다란 기쁨이 가득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을 향유하도록 서로 나누고 힘이 되면서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룩하면서 살기 권면합니다.

3) 하늘에서 받을 대언자의 보상

주님께서 세번째 약속하신 축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2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3 그 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22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받을 미움과 배척과 능멸과 같은 악한 처우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에 스테반과 야고보의 순교에 이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신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함으로써 신도들이 로마 제국의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된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를 미리 예언하시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여도 하늘에 큰 보상이 있으니 그날, 즉 보상을 받게 되는 날의 큰 기쁨을 기대하면서 고난을 잘 참으라는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격려와 약속의 말씀은 1세기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도 크리스챤들이 온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이와 같은 악한 처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제자들이 외롭고 여러 면에서 힘든 생활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특히 한국이나 미국에는 많은 크리스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교파를 막론하고 서로 격려하고 고귀한 사귐을 나누고 힘이 되면서, 우리가 가진 기쁨을 서로 나누며 북돋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1세기의 제자들은 하늘에서 받을 위로와 상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이생에서 성도들이 서로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현실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우리가 영원의 시간에 들어 가지 전에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귀한 하늘의 보화들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받을 큰 대언자의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은 바로 그 보상의 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을 처벌하시면서, 곧 이어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보상을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의 기쁨이 매우 클 것이며 그로 인하여 *"즐거워 뛰놀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날 충성된 종들이 받게 될 보상은 그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훌륭한 것이어서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아이들 처럼 기뻐 뛸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 11:18] 민족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요, 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
> *[요한계시록 19:7]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
> *[요한계시록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모든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이 주의 심판의 날에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고 그 번성을 위한 노력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참예하는 특권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할 수 없이 훌륭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격려가 됩니다. 이런 말로 서로 격려하고 사귐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권면합니다. 아멘.